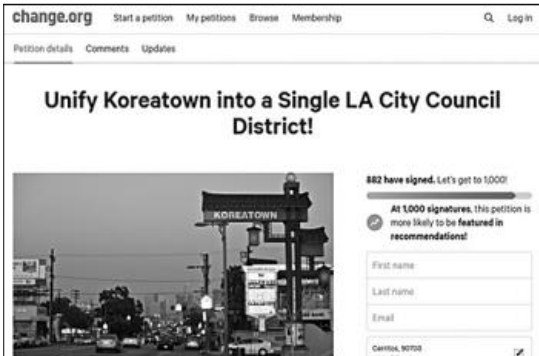


LA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위한 서명 동참 절실



▲ LA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서명 사이트. 지난 12일 오후 2시 20분 현재 882명만이 서명했다

현재 1·4·10·13지구로 나뉜 LA한인타운 선거구를 1개로 단일화하기 위한 서명 캠페인에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단일화 실패 우려를 낳고 있다.

LA한인회가 주축이 LA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데스크포스팀은 지난 4일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청원운동 웹사이트 Change.org에 관련 페이지를 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지만 12일 오후 2시 20분 현재 서명인 수는 882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이달 28일까지 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LA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의 선거구 재조정 관련 공청회를 통해 제출하겠다는 데스크포스팀의 목표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3천 명의 서명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 예측이다. 서명인수는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대한 커뮤니티의 열망과 의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데스크포스팀은 "LA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한인 정치력 신장, 다운 발전, 노숙자 문제 해결, 치안 강화 등과 직결된다."면서 "이는 3년전 LA 한인타운 지역구 분할 저지 때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로 한인들의 서명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스크포스팀은 온라인과 병행해 오프라인에서도 한인들의 서명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3가와 옥스포드에 위치한 YMCA, 대형 한인마켓 등지에서 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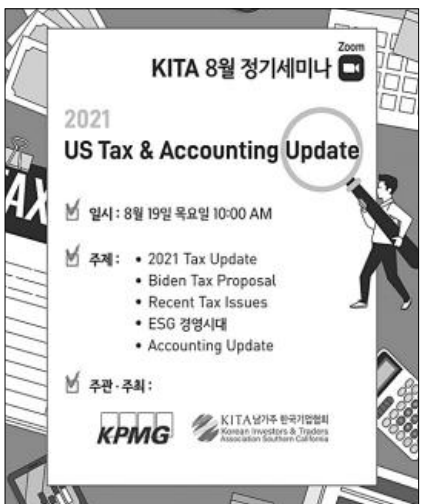
LA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서명은 <https://www.change.org/Unifykoreatown>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KITA 8월 정기 세미나 개최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Southern California, KITA)가 8월 정기 세미나를 8월19일(목), 오전 10시~11시 화상 애플리케이션 ZOOM을 통해 개최한다.

세미나의 주제는 ● 2021 TAX Update ● Biden Tax Proposal ● Recent Tax Issues ● ESG 경영시대 ● Accounting Update 등이며 사회는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의 이병주 법인이 맡는다.

세미나는 참석은 <https://us06web.zoom.us/j/87851084766?pwd=V2FwdVNZMnl3bk90MG53TXh2bU5kUT09Meeting+ID%3A87851084766>, Passcode: 175770)에서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메일(info@kita.com, kitaoffice.manager@gmail.com)로 문의하면 세미나 당일 Q&A 시간에 대답해 준다.

KITA는 남가주에 진출한 한국의 상사, 지사들의 권익 도모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1980년대 초에 설립 되었으며 1996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주류사회 인사들과 교류로 2008년 한미 FTA 협정 체결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2012년 협정 발효 이후에도 FTA의 효율적 이용과 확대를 위한 계몽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상사지사협의회에서 남가주 한국기업협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뉴저지 클로스터시, 한복의 날 제정



▲ 한복의 날을 선포하는 존 글리든 클로스터 시장(중앙 갓 차림)과 브라이언 전 AAYC 대표(중앙 한복 차림). 사진= AAYC

미국에서 한민족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을 제정한 두 번째 도시가 탄생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소년 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대표 브라이언 전)는 전날 뉴저지주 클로스터(Closter) 시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존 글리든 클로스터 시장은 선포문에서 "미국 내 한인사회의 영향력과 한미 관계의 소중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이날 클로스터의 모든 시민이 한국 문화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포문에는 한복이 한국의 문화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영어 표기인 'Republic of Korea'가 포함됐고, 한복도 한글 발음 그대로 'Hanbok'으로 표기했다.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복의 날을 선포한 것은 지난 4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Tenafly) 시에 이어 클로스터시가 두 번째다.

클로스터시가 '한복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 시 차원에서 개최한 아시아 혐오범죄 반대 집회가 계기가 됐다.

브라이언 전 AAYC 회장은 "아시아 혐오범죄 반대 집회에서 연설한 뒤 처음 만난 글리든 시장에게 한복의 날 선포를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승낙해주셨다."고 말했다.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 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된 청소년 단체다. 이 단체는 중국이 김치와 한복을 자신들의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4월 테너플라이시를 설득해 '한복의 날' 제정을 성사시켰다.

Implant \$1,700 \$1,200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잇몸치료 \$600 \$400	틀니 \$1,500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